[인도자용]
다음세대가 인도하는
행복한 가족예배 4월 둘째 주

예수님과 새롭게 시작합시다 [고린도후서 5장 15-19절]

다음 내용을 따라서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해봅시다.(파란색 글씨를 읽으며 인도하면 됩니다.)

오늘 해야할 일

1. 오늘부터 가족예배가 있는 날까지 매일 저녁 가족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온 가족이 함께 가족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게 해주세요.
2)가족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성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게 해주세요.
3)가족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 지혜를 주세요.

2. 이번 주간 가족예배 순서자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순서를 알려줍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가족들과 함께 순서를 정합니다.)

[기도] : 가족 구성원이 순서를 정해 돌아가면서 준비합니다. 순서자가 미리 기도를 준비하도록 인도자가 이야기 해줍니다. 기도내용은 순서지를 따라도 좋고, 순서자가 스스로 준비해도 좋습니다.

[말씀] : 가족 구성원이 순서를 정해 돌아가면서 준비합니다. 순서자가 미리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자 순서지를 보여주고 준비하도록 합니다.(인도자가 맡아서 해도 좋습니다.)

가족예배 10분전

예배 준비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에게 예배시간이 10분 남았음을 알려주고 함께 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시작 10분 전에는 찬송가 연주를 틀어놓고 예배 장소를 세팅하여 가족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이에요. 하던 일을 멈추고 예배를 준비해요.]

가족예배 5분전

예배 장소 세팅이 끝났으면 성경책과 순서지를 준비하고 가족예배 장소에 모여서 각자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질 가족예배를 준비하며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사 도 신 경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며 가족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 도

기도순서자가(아빠, 엄마, 동생, 나) 기도해주시겠습니다.

> 사랑하는 주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기도자가 되어 기도를 준비합니다. 순서지에 있는 내용 또는 기도자가 준비한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찬 송

함께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반주에 맞추어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음원 파일을 준비해서 보내드립니다.

말 씀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님과 새롭게 시작합시다" [고린도후서 5장 15-19절]

15.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16.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8.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말 씀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새롭게 시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나고, 익숙하지 않은 낯선 환경에 노출되는 것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작은 '성장'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작이 꼭 필요합니다. 초등학교가 익숙하다고 초등학생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중학생이 좋다고 중학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자라는 것처럼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믿음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야할 새로운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함께 따라합니다. "우리에겐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로 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주심으로 풍성하고 평안한 인생이 아니라, 살기 위하여 평생 수고하며 고통 해야 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며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과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과 경쟁하며, 다투고, 분쟁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이 세상의 성공만을 바라보는 눈 먼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끄러운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죄를 지은 우리들은 부끄러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며, 죄가 없고, 잘 나가는 사람, 잘생긴 사람, 성공한 사람을 찾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누가복음 5:32)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십니다.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셨습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과거를 지워주시고 예수님으로 거듭난 새로운 삶을 허락해주셨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운 죄인이 아닙니다. 용서를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위한 삶,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로 힘쓰는 우리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은혜선포 **서로를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삶을 삽시다."**
스스로에게도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 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족 신앙스토리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읽고 함께 나누어봅시다.

1. 당신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인생인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인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함께 나누어봅시다.
2. 당신은 나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요? 내가 버려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운 모습은 무엇인가요?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주기도문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족미션

집안에 버려야할 종이 위에 내가 버려야할 부끄러운 모습을 적고 그 종이를 버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살기를 결단합시다.